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가위 미사**
오늘은 부모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위한 위령미사입니다.
함께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2일
날짜 : 9월 30일(월) - 10월 11일(금)
비용 : 3,195불 (필라델피아 출발)
문의 : 윤모니카 회장(254-289-1682)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이매향 도나타>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 1) 글로리아 구역 : 9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에 안우풍 부르노 형제님 댁에서 구역 모임과 미사가 있습니다.
<안우풍 부르노 형제님, 오세환 라파엘 형제님 주관>
 - 2) 비오 구역 : 9월 14일(토) 오후 7시 최영숙 에스터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 3) 마리아 구역 : 9월 14일(토) 오후 6시 마리아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이홍길 프란치스코 형제님, 김연자 글라라 자매님 주관>
 - 4) 마틸다 구역 : 9월 15일(일) 미사 후 '짱가네'에서 있습니다. <신용철 마태오 형제님, 신선희 카타리나 자매님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피아노 판매**
이보현 자매님께서 이사를 가십니다. 영창 피아노를 \$500에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보현 자매님(732-757-8798)께 연락바랍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과**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제1독서	요엘 예언서 2, 22-24. 26ㄱ-ㄴ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4, 13-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 루카 12, 15-21
봉헌성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
성체성가	176번 믿음 소망 사랑
퇴장성가	15번 주님을 찬미하라

오늘의 묵상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세공과 건축에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임금의 자신을 위한 새 왕궁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돈도 다 지불하였지만 토마스는 그 돈을 임금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임금은 토마스 사도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임금의 동생이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형님, 어제 꿈에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제가 살 집은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큰 궁궐을 보았는데 천사는 그것이 형님의 것이고 토마스 사도라는 인물이 지어 준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사기도 하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과 비신양인은 집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 집을 하늘 나라에 짓고, 비신양인은 땅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지은 집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늘에 지은 집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간을 넓히려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 큰 집을 짓던 사람입니다. 지상에 큰 집을 지으려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롭지 못하게 되면 하느님 앞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위에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추수한 것들이 많아 기쁜 날입니다. 이 추수한 것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부유하게 살 집을 짓는 건축 자재들입니다. 이것들을 이 짧은 생애를 위하여 소진해 버릴 것인지 영원히 지속되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한가위 9월 8일	연중 제24주일 9월 15일	연중 제25주일 9월 22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헌자	황선동, 황태영	최만섭, 김명숙	강옥화, 홍혜자

우리들의 주일정성

< 9월 1일(일) >

봉헌금	\$355.00
교무금	\$410.00
	권선용(5-8), 박민수(8,9), 박영희(8), 윤모니카(8-10)
예물봉헌	\$20.00
Total	\$785.00